『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7
pp.107-122 ISSN : 1229-9618

일제강점기 대만 문단에서 활약한 조선인 박윤원*

황선미**

【목 차】

1. 들어가며
2. 대만 '문사(文社)' 잡지에 실린 조선인 박윤원의 글
3. 박윤원의 대만 인식
4. 나가며

【초록】

대만 스이린(施懿琳) 교수는「대만 문사에 대한 초탐 — 1919-1923년『대만문예총지』를 대상으로(台灣文社初探—以1919-1923『台灣文藝叢誌』為對象)」라는 글에서 "『대만문예총지』(1921.03.15.) 제3년 제3호에 게재된「堅忍論(二)」와「史前人類論(續)」이라는 두 편의 글을 쓴 사람은 박윤원인데, 그는 아마도 한국 사람인 듯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스이린 교수가 추정한데로 박윤원(朴潤元)은 한국 사람이다. 박윤원은 기자 출신이다. 그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약 3년간 대만에 체류한 바 있다. 박윤원은 대만에 있을 때 대만 '문사(文社)' 잡지인『대만문예총지(台灣文藝叢誌)』와『숭문사문집(崇文社文集)』에 세 편의 글을 기고했다. 또한 그는 조선 계몽잡지인『개벽』과『동아일보』에 대만과 관련된 글을 기고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1920년대 조선과 대만을 무대로 창작 활동을 전개한 박윤원이라는 인물 발굴과 그가 조선에서 기고한 글에 나타난 대만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는 데 있다.

【키워드】 박윤원, 대만문예총지, 숭문사문집, 개벽, 1920년대, 대만인식, 기행문

---

* 본 논문은 2010년 11월 19일에서 20일까지 양 이틀간 國立清華大學 臺灣文學研究所에서 '다국적 식민지 기억과 냉전경험(跨國的殖民記憶與冷戰經驗)'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學系의 許俊雅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hsm3532@hanmail.net)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1920년대 조선과 대만을 무대로 창작 활동을 전개한 박윤원(朴潤元)이라는 인물 발굴과 그의 대만 여행기에 나타난 대만 지역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는 데 있다. 근대 이전 청나라를 통해 전해진 대만은 한인에게 미지의 영토, 인심을 알 수 없는 '이역(異國)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었다.[1] 조선인의 대만 이주는 일본 식민통치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 대만 이주 한인의 수가 불과 1백여 명에 머물렀으나, 일제가 블록을 형성하던 1930년대 초반에는 1천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매년 1백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3백여 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인의 인구 증가는 출생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유입에 의해서였다.[2]

1920년대 대만에 거주한 1백 명에 불과했던 한인 중 특이한 경력을 가진 지식인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조선인으로서 『대만문예총지(台灣文藝叢誌)』라는 타이중(台中)에서 간행된 잡지에 글을 투고하였다. 대만 스이린(施懿琳) 교수는 「대만 문사에 대한 초탐 — 1919-1923년 『대만문예총지』를 대상으로(台灣文社初探—以1919-1923『台灣文藝叢誌』為對象)」라는 글에서 "『대만문예총지』(1921.03.15.) 제3년 제3호에 게재된 「堅忍論(二)」와 「史前人類論(續)」이라는 두 편의 글을 쓴 사람은 박윤원인데, 그는 아마도 한국 사람인 듯하다."[3]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스이린 교수가 추정한데로 박윤원은 한국 사람이다. 박윤원은 「臺灣蕃族과 朝鮮」(상)이라는 칼럼에서 "나는 一九一九年으로부터 一九二一年까지 約三年間이나 어떤 環境에 억매여 臺灣에 滯在한 일이 잇섯다"[4]라고 밝힌 바 있다. 박윤원은 대만에 체류하게 된 이유를 단지 환경적 요인으로 일축하고 있어, 그가 3년간 대만에 머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가 대만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대만 유명 잡지와 조선의 계몽 잡지인 『개벽』에 글을 투고했다는 사실이다.

박윤원은 1921년 3월에 『대만문예총지』에 두 편의 글을 투고했을 뿐만 아니라, 2, 3개월 전에 대만 중부지역인 장화(彰化)에서 창간된 『숭문사문집(崇文社文集)』 3권에 「국교종교변(國教宗教辨)」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5] 『숭문사문집』은 1919년 12월부터 「국교종교변」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꾸준히 모집했다. 『숭문사문집』의 「국교종교변」에는 모두 10편의 글이 투고되었다.[6] 그 중 한 편이 박윤원의 글이다. 『숭문사문집』은 장화현에서 발간된 잡지

---

1) 오태영, 「근대 한국인의 타이완 여행과 인식—시찰기와 기행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6(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9, p.301.
2) 황선익, 「일제강점기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강제연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08, p.397.
3) 施懿琳, 「台灣文社初探—以1919-1923『台灣文藝叢誌』爲對象」, 櫟社百年學術研討會, 臺中縣文化局, 2001.12.08-09, pp.1-24.
4) 『동아일보』, 「臺灣蕃族과 朝鮮」(상), 1930.12.10, 4면.
5) 朴潤元, 「國教宗教辨」, 『崇文社文集』 3卷, 蘭記圖書部承印, 1920, p.15.
6) 『崇文社文集』 3권 「國教宗教辨」에는 石鯨, 朴潤元, 許子文, 彭鏡泉, 鄭用九, 陳錫如, 黃卧松, 李修文, 王欽明 등 9명의 글이 게재되었으며, 마지막 글은 중위(仲禹)의 국교종교론에 대한 스징(石鯨)이 반박한 글이 실렸다.

이고, 『대만문예총지』는 타이중에서 창간된 잡지이다. 또한 박윤원이 『개벽』에 투고한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이라는 글에서도 타이중에서 인삼판매를 하는 한재룡(韓才龍)을 특별히 언급한 걸로 봐서 박윤원이 대만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숭문사문집』과 『대만문예총지』에 글을 투고했던 듯하다.

박윤원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그의 이름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의 인물 사전편이나 현대작가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박윤원이 과거 합격자이거나 당대 유명 작가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박윤원은 모종의 이유로 대만에서 3년간 지내게 된다. 하지만 대만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듯하다. "海外에 流離되고 生活에 困難을 바다 眼鼻莫開일 뿐더러 兼하여 外來의 別別 受苦와 여러 가지 不平이 만"[7]았다. 이 인용문은 그가 대만에 있을 때 『개벽』 잡지사에 보낸 「讀者 交情欄」의 한 구절이다. 대만 생활에 대한 박윤원의 부정적인 견해가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海外에 流離되'었다는 표현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環境에 억매여"[8]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선 길임을 의미한다. 혼란과 격변의 시대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았던 박윤원은 대만에서 '별별 고생'을 다하고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지만 그는 이를 글로 승화한다. 1921년 3월에 그의 글인 「臺遊雜感」이 『개벽』잡지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 "(開闢)兄에게 對한 心悅誠服이 今日에야 비롯오 壇에 올라 手舞足蹈"[9]처럼 기뻐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윤원은 언론사 기자 출신이다. 그는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자로 활동하였다. 1926년 1월 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國境記者大會 發起準備中」이라는 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박윤원은 1925년 12월 29일에 의주(義州)에서 열린 국경기자대회에서 준비위원과 집행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했다.[10] 의주는 압록강 연안에 위치한 곳으로, 국경의 관문이었다. 따라서 군사력이 의주에 집중되었으며, 중국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제무역 도시로서의 위상도 떨치고 있었다.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의 요충지였던 의주에서 박윤원은 1930년 12월에 『동아일보』 의주 지국 기자로 정식 임명된다. 1930년 12월 31일자 『동아일보』 4면 「謹告」란에 "박윤원, 김용식 : 소화(昭和) 5년 12월 27일에 동아일보사 의주 지국의 기자로 임명되다."[11]라는 보도처럼 박윤원은 의주 지국으로 발령받아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이라는 글에서는 "나의 벗 崔兄은 나와 한 가지 있기 爲하야 멀리 義州로부터 渡臺한 一人이었다."[12]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그는 의주 지역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듯하다.

박윤원은 사회 참여적 언론인이었다. 1926년 10월 26일에 天道教青年黨, 푸로 同志會, 義州青年會 등 세 개의 단체가 중심으로 주최한 「社會問題大講演」에서 박윤원은 「農村改革의 一面」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3일간 개최된 이 강연회는 수백 명의 청중이 참여했으며,

---

7) 『개벽』, 제9호, 「讀者 交情欄」, 1921.03.01.
8) 『동아일보』, 「臺灣蕃族과 朝鮮」(상).
9) 『개벽』, 제9호, 「讀者 交情欄」, 1921.03.01.
10) 『동아일보』, 「國境記者大會 發起準備中」, 1926.01.02., 6면.
11) 『동아일보』, 「謹告」, 1930.12.31., 4면.
12) 朴潤元,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개벽』, 창간 1주년 기념호, 新文館, 1921, p.80.

매번 대성황리에 일정을 마쳤다.[13] 이 강연은 의주기자단이 주최자가 되어 일정을 진행했다. 며칠 후에 동아일보 의주 지국에서도 「正音頒布八回甲 紀念祝賀講演」을 개최하였다. "이날을 좀 더 뜻잇게 보내자"[14], "둘도업는 우리의 글은 조선의 비치다"[15], "사백 팔십년의 눈물겨운 력사를 들으라"[16] 등 3대 표어를 내세운 이 행사에는 밀려드는 군중으로 시작 전부터 만원이 되었다.[17] 이 행사에서는 백세명(白世明)이 「조선 사람과 조선 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으며, 박윤원은 「한글의 녜와 이제」 즉, '한글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우리 정음이 무지몰각한 한학자에게 만흔 천대를 밧든 사백년간의 눈물겨운 역사와 금후에 취할 태도와 방침에 대하야 연사들의 숙변(熟辯)에 만흔 청중들은 무한한 흥감을 늣기여 공전(空前)의 대성황"[18]을 이루었다. 박윤원은 대중 강연자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1929년 9월에는 "義州靑盟義州面支部에서 공부를 하랴하나 할수업는 무산아동을 위하야 금월 일일부터 동회관에서 로동 야학"[19]에서 야학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1930년 12월 18일에는 성탄절 기념으로 개최된 '全義州少年少女懸賞童話大會'에 심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언론인, 강연자, 야학 선생님 등 조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박윤원은 대만에 체류할 당시 조선 독자들에게 대만을 소개하거나 대만에서 생활하는 조선인에 관한 글을 기고하면서 대만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는 1921년 3월 1일에 발행된 『개벽』 제9호에 「臺遊雜感」이라는 글을 투고하였다. 이 글은 그가 대만에 있을 때 조선으로 보낸 것이다. "異域生活이 別로 奔忙하심도 불구하고 특히 本誌讀者를 위하야 臺灣에서 어들 것을 주신, 또는 계속적으로 주실 朴씨의 近狀을 알키는 뜻으로 氏의 보내온 私簡 중 一節을 附記하나이다."[20] 4개월 후인 7월에도 박윤원은 대만에서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이라는 글을 동일한 잡지인 『개벽』 제13호에 보냈다.[21] 박윤원은 대만에서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나는 이 문제에 대하야 日記나 路程記 가튼 것을 쓰고저 함이 아니라 본 대로 들은 대로 감상된 바를 단편적으로 次序업고 계통업시 기록하야 멀리 敬愛하는 우리 동포의 案前에 供코저 하노라."[22]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두 편의 글은 박윤원 자신도 언급했듯이 대만 여행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조금의 꾸밈이나 과장 없이 솔직 담백하게 쓴 것이다. 잡지에 실은 이 두 편의 글 외에, 1930년 10월에 대만에서 일어난 우서사건(霧社事件)을 계기로 『동아일보』에 「臺灣蕃族과 朝鮮」이라는 제목으로 1930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상, 중, 하편으로 나누어 4면에 3일 동안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박윤원이 활동하던 무대는 조선과 대만이었다. 특히 그는 대만 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집필

---

13) 『동아일보』, 「社會問題大講演」, 1926.11.04., 4면.
14) 『동아일보』, 「正音頒布八回甲 紀念祝賀講演」, 1926.11.08., 4면.
15) 위의 기사.
16) 위의 기사.
17) 위의 기사.
18) 위의 기사.
19) 『동아일보』, 「勞働夜學設置」, 1929.09.02., 4면.
20) 朴潤元, 「臺遊雜感」, 『開闢』, 제9호, 新文館, 1921, p.100.
21) 朴潤元,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p.80.
22) 朴潤元, 「臺遊雜感」, p.93.

활동을 했다. 본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나는 박윤원이 대만 잡지에 발표한 글이다. 박윤원은 대만에서 세 편의 글을 발표했다. 시기는 1919년에서 1921년 3년간 걸쳐있으며, 『대만문예총지』에는 「堅忍論(二)」(1921)와 「史前人類論(續)」(1921)이, 『숭문사문집』에는 「국교종교변」(1921)에 관한 한 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또 다른 갈래는 박윤원이 조선 잡지나 신문에 발표한 글로서, 「臺遊雜感」,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臺灣蕃族과 朝鮮」을 중심으로 박윤원이 갖고 있는 대만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20, 30년대 조선과 대만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당시 조선인이 갖고 있던 대만인식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이는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될 것이다.

2. 대만 '문사(文社)' 잡지에 실린 조선인 박윤원의 글

『대만문예총지』 제3년 제3호에 박윤원의 「堅忍論(二)」와 「史前人類論(續)」두 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두 편 모두 후편에 속하는 글이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堅忍論」과 「史前人類論」 '전편'도 『대만문예총지』에 실려 있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자료 조사에 따르면, 「史前人類論」 '전편'은 『대만문예총지』제3권 제2호 12쪽에서 14쪽까지 3쪽에 걸쳐 실려 있다. 하지만 「堅忍論」 '전편'은 찾아볼 수 없었다. 「堅忍論(二)」와 「史前人類論(續)」은 대만잡지에 실린 박윤원의 첫 작품은 아니다. 그는 이 두 편의 글을 발표하기 몇 개월 전에 『숭문사문집』에서 「국교종교변」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모집했을 때 '공교론'과 관련된 글을 투고한 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박윤원의 글 세편이 모두 '문사'에 실렸다는 사실이다.

당시 '문사'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잡지가 바로 박윤원이 투고한 '숭문사'와 '대만문사'였다. 1910, 20년대 대만 문인들의 문학 활동은 대부분 '시사(詩社)'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당시 결성된 시사 모임만 하더라도 370개가 넘었으니, '시사'의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만문사'도 타이중에서 결성된 '시사'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역사(櫟社)'의 핵심인물이었던 차이후이루(蔡惠如)와 린요춘(林幼春), 린셴탕(林獻堂)이 1918년 10월에 결성한 조직이었다. "대만이 노예로 천락된 이후에……고아한 문자가 사라져가고 있어, 튼튼한 기둥을 만들기 위해 대만문사를 설립했습니다."[23]처럼 '창립취의서(創立趣意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이들은 한학이 점점 침체되어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대만문사'는 결성된 지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500여명의 문인들이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린요춘을 비롯한 27명이 이사를 맡고, 홍치셩(洪棄生) 등 38명이 평의원(評議員)으로 선임되었다. 1919년 1월 1일에는 대만문사의 기관지인 『대만문예총지』를 창간하여, 한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대만문예총지』에 게재된 박윤원의 「堅忍論(二)」와 「史前人類論(續)」은 그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1916년에 간행된 한국 국어 교과서인 『시문독본』에 실린 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23) 『台灣文藝叢誌』 第一號, 臺灣文社, 1919.01, 페이지 없음.

다. 「堅忍論(二)」와 「史前人類論(續)」에 박윤원이 역자로 표시되거나 번역문이라는 설명은 없지만 『대만문예총지』와 『시문독본』에 실린 글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① 「堅忍論」

저 南北戰爭을 看하라. 링컨은 天縱의 英傑이요、그랜트는 稀世의 將師요、戰士가 百萬이요、戰費가 무궁하였으되、初에 푸란에 패하여 銳氣가 先折한 후로 항상 敗績이 승리보다 多하고、他邦의 동정까지 敵軍에 在하여 外勢가 심히 불리하였으며、게티즈버어그의 최후 勝捷을 得하기까지 必弱氣短者로 하여금 必敗를 斷케 함이 一二에 止치 아니하였으니、설혹 一敗에 再起하고 再蹶에 三奮하였을지라도 능히 堅忍又爾하여 連敗에 連起함이 아니면 최후의 승패가 분명 地를 易하였을지라.[24] 『시문독본』의 「堅忍論」

看此南北戰爭。林肯天縱之英傑。克蘭斯頓稀世之將師。戰士百萬。戰費無窮。初敗於波蘭。銳氣先折之後敗績常多於勝利。他邦之同情反在於敵軍。外勢雖甚不利至於得最後勝捷。乃使心弱氣短者。果斷必敗不止一二。設或再起於一敗。三奮於再蹶若非能堅忍又爾。連敗連起者則最後之勝敗。分明為易地矣。[25]『台灣文藝叢誌』,「堅忍論(二)」

② 「史前의 人類」

木燧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점차로 石器時代를 免하게 되었다. 古石器時代에는 볼 수 없던 陶器를 新石器時代에 와서 現出하기는 확실히 불의 힘이다. 불의 힘이 더욱 진보하여 礦物界로 侵入하여 銅이 인류에게 이용되게 되매、石器時代가 옮겨 銅器時代가 되었다. 그러나 銅은 軟한 礦物이므로 銅으로 만든 것은 平和의 器具거니 武器였다.[26]『시문독본』의 「史前의 人類」

人類實由於木燧之發現而漸免石器之時代。古石器時代難見之陶器現出於新石器時代者。誠是火之力也。益去進步侵入礦物界而銅為人類之利用。故石器時代移為銅器時代。然銅是軟質之礦物。銅製之器自是平和之器具及武器之效用。『台灣文藝叢誌』, 「史前人類論(續)」[27]

「堅忍論」과 「史前의 人類」는 순수 국어보다 한자어가 더 많이 쓰인 한문체에 가까운 글로서, 박윤원은 번역할 때 제목 및 내용에 쓰인 한자를 중국어로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堅忍論」의 주된 주장은 성공의 전제는 인내와 끈기이며, 영원한 성공비결은 바로 노력이라는 것이다. 링컨(Abraham Lincoln), 그랜트(Ulysses Simpson Grant), 나폴레옹(Napoléon) 등 실제 인물을 실례로 들면서, 이들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며, 이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두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堅忍論(二)」는 『시문독본』 제3권 제10과와 제11과에 실린 글로서, 최남선이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 1812-1904)의 『자조론(Self Help』(1859) 중 일부분을 발췌, 번역하여 『시문독본』에 소개한 글이다. 『자조론』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메시지에 독립적인 정신을 사상적 근간으로 삼아, 역경을 딛고 일가를 이룬 서구의 300여 명의 위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자본가의 횡포를 고발하고 노동자의 비참한 환경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노동계급의 불만과 그들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영국뿐만

24) 최남선, 『시문독본』, 현암사, 1973, pp.533-534.
25) 『台灣文藝叢誌』, 제3권 제3호, 臺灣文社, 페이지 없음.
26) 최남선, 앞의 책, pp.576-577.
27) 『台灣文藝叢誌』, 제3권 제3호, 페이지 없음.

아니라 일본과 조선 그리고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본에서는 1871년에 『西國立志編』이라는 제목으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에 의해 번역되어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주 정신은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형성에 있어 새로운 일본과 자신의 앞날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책은 1906년에 다시 아제카미 겐조(畔上賢造)에 의해 『自助論』이라는 제목으로 새로 번역되어 상, 중, 하 3권으로 나누어 출간되었다. 아제카미 겐조의 『自助論』은 1906년 이래 조선에서도 여러 차례 중역(重譯)되었으며, 발췌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조선에서는 1906년 6월 25일에 『조양보』창간호에 최초로 부분 번역, 소개되었다. 1906년에서 1908년 사이에 『공수학보』(제1호, 1907.02), 『서우학보월보』(제1권 제13호, 14호, 1907.12-1908.01), 『대한자강회월보』(제2권 제7호, 1907.08) 등을 통해 소개되었다. 『자조론』은 이후 1918년 4월에 최남선에 의해 전체 13장 중 6장을 발췌한 번역본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청춘』에 번역자의 서문이 실리면서 특집 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시문독본』의 집필자였던 최남선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내용 중 일부분을 「堅忍論」이라는 제목으로 『시문독본』에 실었으며, 이를 박윤원이 중국어로 번역하여 『대만문예총지』에 투고하여 게재한 것이다.

「史前人類論(續)」은 『시문독본』 제4권 제21과에 실린 글로서, 기원전 인류의 역사 등을 서술한 인문학적인 글로서, 인류의 기원, 문명의 발생과 과정, 인류의 진화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시문독본』에는 총 26편의 글을 담고 있다. 그 중 박윤원이 「史前의 人類」를 선택하여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윤원은 「臺遊雜感」에서 "대개 蕃人의 역사는 약 삼백년(?) 이상의 長 세월을 經하얏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에 석기시대를 經하야 철기시대에 入한 듯 하다. 그러나 尙今도 酋長制度와 부락생활임으로 互相 間에 언어와 풍속이 각각 차이가 잇스며 딸아서 그들의 날마다 영위하는 바 실업은 대략 農獵漁 三種에 分할 수 잇다. 그 역시 蕃과 蕃 사이에 각각 定界가 잇서서 자기의 구역과 범위를 초월치 못한다."[28]라고 언급하고 있다. 박윤원은 대만이 막 철기시대에 진입한 것 같다고 하면서 원주민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 호기심을 드러냈다. 원주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그가 인류의 기원 및 진화에 관한 글을 번역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숭문사문집』 제3호에 실린 박윤원의 「국교종교변」이라는 글은 역작이 아니라 그가 직접 창작한 글이다. 『숭문사문집』은 1917년 10월 6일에 장화에서 성립된 대만 최초의 '문사' 조직이다. 『숭문사문집』편집부는 1918년부터 다양한 관점과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월 주제를 정해 원고를 모집하여, 화제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수록했다. 단편의 사회비평보다 특히 더 많은 이목을 끌었던 것은 「국교종교변」이었다. 이 주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공교론(孔教論)'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919년에 숭문사와 대만문사는 모두 '공교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1919년 1월 『대만문예총지』는 창간호에 22편의 '공교론'에 관한 글을 약 40쪽의 지면을 할애하여 출간했다.[29] '공교운동'은 원래 무술변법을 주도한 캉유웨이(康有為)가 창안한 공교 구상으로, 공자의 도리

28) 朴潤元, 「臺遊雜感」, p.93.

29) 許俊雅, 「朝鮮作家朴潤元在臺作品及其臺灣紀行析論」, 『成大中文學報』, 第三十四期, 國立成功大學中文系, 2011.09, p.26.

는 시대와 함께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구상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천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성공하자 캉유웨이는 그 이전부터 가다듬어 온 공교국교화 구상을 새로 탄생한 중화민국에서 실천시키고자 했다. 그 때 캉유웨이는 이 운동의 실천자로 그의 제자였던 천환장(陳煥章)을 지목했다. 천환장은 1904년에 과거에 합격해서 진사의 자격을 얻은 뒤, 1905년에 관비 유학생으로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하고 1911년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였다. 캉유웨이의 지시를 받은 천환장은 미국에서 귀국한 후, 1912년 9월에 상하이 상셴탕(尚賢堂)에서 공교를 선양하는 강연을 연속적으로 열었다. 그리고 그 해 10월 7일에 공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상하이(上海)의 산둥회관(山東會館)에서 개최하여, 공교회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1912년 12월에는 민국교육부(民國教育部)로부터 정식적인 승인서를 얻어, 정부 공인 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13년 2월에는 기관지인 『공교회잡지(孔教會雜誌)』를 발행했으며, 7월에는 베이징(北京)에 진출하여 베이징 공교회사무소를 설치하였다. 1914년 8월에는 량치차오(梁啓超)등과 함께 공교 국교화를 요청하는 '공교회청원서(孔教會請願書)'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한편 1913년 10월에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되면서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위안스카이는 1915년 12월에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제정(帝政) 복귀를 선언했다. 위안스카이는 새로운 중화 제국을 통합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를 공교에서 구하고자 했다. 그는 우선 1913년 10월에 '국민교육은 공자의 가르침을 수신(修身)의 근본으로 삼는다.'(제19조)를 헌법 초안으로 완성시키고, 이어서 1915년 6월에는 교육 총장에게 유교에 따른 도덕 교육의 강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1916년 6월에 위안스카이가 병사하면서 사실상 최대의 정치적 응원자를 잃게 된 공교운동은 급속히 시들어져갔다. 캉유웨이도 공교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919년에는 5·4운동이 벌어지고, 우위(吳虞)와 천두슈(陳獨秀)를 중심으로 『신청년(新青年)』잡지로 결집한 지식인들은 민주와 과학의 기치 아래에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교화를 비판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교 운동은 그 위력을 완전히 잃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카와지 사치요(川路祥代)는 1919년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공교론'의 형성은 당시 대만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모순을 반영한 것으로, 대만에서의 '공교'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 형태(counterideology)'로 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30] 옹성펑(翁聖峰)의 연구에 따르면, 「국교종교변」에 투고된 원고 대부분이 주장하는 바는 전제(專制) 시대에는 공교가 국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공교를 국교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당시 통치자는 일본이므로 공교가 아니라 일본의 신도교(神道教)를 국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31]고 한다. 박윤원은 '공교국교론'을 반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국교종교변」에서 "동서의 교통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문명도 점점 개방되고 있다. 오늘날 만국이 평화로워 인류가 행복을 도모하니,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32]라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설파하였다. 또한 박윤원

30) 川路祥代, 「1919年日本殖民地臺灣之「孔教論」」, 成大『宗教與文化學報』, 第1期, 2001.12, pp.1-32 참고.
31) 翁聖峰, 「日治時期臺灣孔教宗教辨—以臺灣文社及崇文社為論述中心」, 「淡江大學12屆社會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 2008.05, pp.8-10 참고.
32) 『崇文社文集』3卷, 蘭記圖書部承印, 1920, p.15.

은 “오늘날 세계가 서로 통하며, 인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교이든 종교이든 서로 공유하고 응용하며 병행해 가야 한다.”[33]라고 하면서 공교를 국교로 삼는 것보다는 서로 공유, 응용하며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선에서도 공교운동을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유학자(儒學者)들이 등장했다. 특히 중국 동북 지역에서 독립 운동을 벌였던 유학자들이 공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지하다시피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 유학자들은 의병 투쟁을 벌이며 일본에 저항했다.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유학자들의 상당수는 일본 측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했다. 유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장소가 중국과 조선 국경 부근에 위치한 만주(滿洲)였다. 공교회(孔敎會)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던 1912년경부터 이미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사이에서는 공교회 지부(支部)를 만드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중국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교 운동을 추진했던 조선 유학자들은 조선 시대 500년간 국교로서의 역할을 해 온 유교 사상을 재생시킴으로써 조선 동포들의 정신적 일치단결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독립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중국이라는 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무엇보다 운동 단체의 조직화가 급선무였으나, 가족 및 종족의 제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유교의 근대적인 종교 조직화를 목표로 한 캉유웨이의 공교 운동은 중국에 망명한 조선 유학자들에게 항일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 구성의 모델이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를 통해서 중국과 조선의 유학자들이 서로 연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던 듯하다.[34] 하지만 조선 내의 공교운동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처럼 박윤원은 대만 ‘문사’ 잡지에 세 편의 글을 투고한다. 이 중 두 편의 글은 물론 창작은 아니지만 그의 역작은 당시 조선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조론’에 관한 것이었으며, ‘공교론’도 조선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주제였다.

3. 박윤원의 대만 인식

박윤원은 대만에 있을 때『개벽』제9호와 제13호에 각각「臺遊雜感」과「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을 게재하였다. 또한 그는 1930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상, 중, 하편으로 나누어『동아일보』4면에「臺灣蕃族과 朝鮮」이라는 글을 3일 동안 연재하였다.「臺遊雜感」은 여행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전형적인 기행문이다. 박윤원은 어떤 모종의 이유로 대만에 가서 타 문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낯설고 신비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臺遊雜感」은 크게 여덟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 단락의 주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원주민의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 ② 원주민 부족 간의

33) 위의 글, p.15.
34) 佐々充昭, 「東アジア近代における孔教運動の展開—康有為と朝鮮人儒学者との交流を中心に」, 『The Ritsumeikan literature review』, 626, 2012.03, p.91.

‘계약’ 방식 ③ 부족의 통솔자인 추장의 의복에 관한 내력 ④ 현대성 문명에 대한 원주민들의 배척 ⑤ 지형지세를 이용한 뛰어난 전략술로 일본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원주민의 지혜와 책략 ⑥ 원주민들의 공동생산과 공동분배 ⑦ 원주민사회의 혼인제도와 풍속 ⑧ 정조를 지키는 아낙네의 모습과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용 생활 기구이다. 매 단락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臺遊雜感」은 대만 원주민에 관한 글이다. 박윤원은 “남다른 感想을 가지고 臺灣과 蕃族을 注視”[35]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대만 원주민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과 동시에, 원주민 고유의 가치관과 지혜, 그리고 항일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대만 원주민은 대만 섬이나 주변 섬에서 오래전부터 정착하며 살았던 여러 민족을 일괄적으로 가리키는 총칭이다. 대만 원주민은 동남아시아부터 남태평양,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퍼져있는 ‘오스트레일리아어권’에 속하는 민족을 가리킨다. 또한 동남아시아 섬 지역과 오세아니아의 민족의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대만에 도래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17세기부터 중국 대륙 특히,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의 한족이 대만으로 대거 이주하여 대만 서부와 북부 평지에 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점차 다수의 한족에 융합, 동화되어 갔다. 청나라 시기에는 동화된 원주민을 가리켜 ‘숙번(熟蕃)’ 혹은 ‘평포족(平埔族)’이라고 불렀다. 반면 대만 중앙 산맥 동부의 평지 및 대만 본섬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란위(蘭嶼) 섬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19세기 말까지 독자적인 문화와 사회, 정치적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생번(生蕃)’이라고 불렀다. 일제 때에는 이들을 가리켜 ‘고사족(高砂族)’이라고 불렀다.[36]

박윤원은 원주민을 가리켜 ‘숙번’ 혹은 ‘생번’이라고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통틀어 ‘번족(蕃族)’ 혹은 ‘번인(蕃人)’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박윤원은 원주민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동물로 서술했다. 원주민 사회는 비문명, 야만, 위생개념도 없는 지저분하며, 무모하고 우스꽝스러운 미신이 난무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원시적인 원주민 사회를 폄하,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주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순수한 천성, 신의, 단정하고 진실 된 그들의 가치관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아- 이것을 野蠻視 할가 文明視 할가. 一大 연구 자료인 동시에 그들의 種族性이 풍부한 것은 우리가 그를 感歎치 안흘 수 업다.”[37]라든가 “아아- 그들의

35) 『동아일보』, 「臺灣蕃族과 朝鮮」(상).

36) 대만 원주민에 대한 용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일제 초기에 대만 원주민은 ‘번족(蕃族)’이라고 불리어졌다. 그러나 1923년 황태자(훗날 쇼와 천왕)가 대만을 방문한 계기로 ‘고사족(高砂族)’이라고 개칭되고 1935년에는 이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민당 정권에 처음으로 ‘고산족(高山族)’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후에 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1947년에 ‘산지동포(山地同胞)’로 개칭되고 ‘산포’라고 약칭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해방된 후에도 ‘번족’, ‘고사족’, ‘고산족’ 등의 명칭은 1950, 60년대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1956년에 대만 정부는 ‘대만성 평지산포인정표준(臺灣省平地山胞認定標準)’이라는 법령을 공표하여 대만원주민을 거주, 생활지역에 따라 ‘산지동포’와 ‘평지동포’로 구분하였다. 1980년대 중기부터 세계각지에서 일어난 원주민 복권운동을 배경으로 대만사회에도 민주화, 자유화 운동에 합류하게 되면서, 도시에 사는 원주민의 젊은 세대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1984년에 ‘대만원주민권리촉진회’가 발족되었다. 1994년에는 ‘대만 원주민’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산포’대신 헌법과 사회 일반에 정식 명칭으로 인정받았다. 2016년 8월 1일에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은 과거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 대만 총통으로서 최초로 원주민에게 사죄했다.

果斷心과 인내성은 蕃人의 특색이라고 이를 만한 동시에 자기의 천연한 소질을 발휘함에는 한번 稱歎치 안흘 수 업다."[38], "그들이 智力만 驍勇할 뿐 아니라 公益을 圖함에 私讐를 思치 아니하며 일터에 나와 생명 아끼지 안는 勇敢力은 어찌 蕃人의 愚昧 頑惡으로만 볼바티요."[39], "그들의 천연한 양심에서 솟아나는 仁心義性은 어려운 患難 가운대서 역력히 볼 수 잇다."[40] 이처럼 원주민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박윤원은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이루어진 토지정책으로 인해 권리와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원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근대에 至하야는 別種의 공급도 업슬 뿐더러 겸하여 문명상 利器인 電網, 폭탄, 비행기 등의 위협과 壓迫이 날로 심하며 또 그 大하던 領地가 날로 縮하야 집에 大憤을 發한 그들은 對抗策으로써 以卵擊石의 途를 향하야 死而後已라는 결심을 한 듯하다."[41]고 서술하였다. 일본은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을 체결한 뒤 대만 원주민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시켜 가혹하게 혹사시키고 풍부한 산지 자원을 수탈했다. 일본은 '토지조사사업'(1898.9-1905.3)과 '임야조사사업'(1910-1925) 등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총 면적의 60%의 산지 및 자원을 빼앗아갔다. 대를 이어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자꾸만 줄어들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른 원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것은 삶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臺遊雜感」에서 대만 원주민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견해를 밝힌 박윤원은 4개월 후인 1921년 7월에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생활 및 상황에 대해 서술했다. 그는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내가 우리 고국에 잇슬 때에 그립던 바와 가티 고국에 계신 여러 형제는 우리와 가티 외지에서 생활하는 來歷談을 듯고저 함이 계실 듯합니다."[42]라고 밝혔다. 박윤원은 대만으로 이주한 한인의 초기 생활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우리 형제가 臺灣에 왕래를 始함은 何時부터인지 追徵할만한 자료가 無함으로써 知得키 難하나 그러나 혹 富豪家의 中堂에 게재된 뚜렷한 筆跡을 참고하며 혹 島人의 傳說을 其然未然한 中에서 종합하야 보건대 약 50년 전부터 開路되엇슴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온 목적은 다 생활난에 지배를 바다 金錢이 풍부한대는 新金山(南洋諸島 및 臺灣 등지)이라고 떠드는 바람에 三十六計의 마즈막 즉 一攫千金의 慾으로 정다운 故國의 山川을 등지고 사랑 깁흔 家園의 친족을 떠나 客苦의 辛酸을 飴로 甘하며 道路의 跋涉을 樂으로 享하야 人蔘行商으로 同島에 徘徊한 것이 移住의 시작이엇다.[43]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한인의 초기 대만 이주는 인삼 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인

37) 朴潤元, 「臺遊雜感」, p.93.
38) 위의 글, p.94.
39) 위의 글, p.95.
40) 위의 글, p.95.
41) 위의 글, p.94.
42) 朴潤元,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p.76.
43) 위의 글, p.75.

인삼상인에 대한 1916년 2월 17일자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 따르면 "최근 人蔘販賣와 기타 行商을 목적으로서 新嘉坡 지방에 渡航하는 韓國人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44]라고 되어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1910년 2명의 한인들이 대만에 이미 정주하고 있었다.[45] 박윤원은 인삼 상인으로 '한재룡'이라는 인물을 거론했다. 한재용은 대만에서 선흥사(鮮興社)라는 인삼농장을 운영한 인물이었다. 박윤원은 한재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氏의 원적지는 平北 義州다. 그는 일즉이 俗臼의 屣를 脫하고 南支 각지로 遨遊하다가 약 19년 전경에 渡臺하야 所聚한 金錢도 實로 數萬이엇스나 그러나 공익심이 풍부한 그는 數萬의 재산을 散盡하야 동포의 구제에 全生命과 全一身을 供獻하얏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엇섯다. 그리하야 牛를 見하고 羊을 見치 못한 그는 고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자기가족도 顧見할 暇隙이 無하엿다.[46]

한재룡은 평북 의주 출신으로 1903년경에 대만으로 이주했다. 그는 인삼 판매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대만 이주한인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재룡은 "곤란을 당한 동포를 위하야 얼마만큼 자기의 衣食을 經濟하야가면서 全力을 다하야 지도하며 衣食을 지배하고 상품을 供給하엿다."[47]으며, "그리하야 그의 경영하는 鮮興社라는 蔘莊은 無衣無食한 동포형제의 수용소라 하야도 과언이 아니엇섯다."[48] 대만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동포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고 이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에서 한재룡의 자선가와 공익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921년 8월 이후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박윤원은 거의 10년 만에 「臺灣蕃族과 朝鮮」이라는 칼럼으로 다시 독자들에게로 돌아왔다. 박윤원은 「臺灣蕃族과 朝鮮」에서 대만이란 섬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선과 대만의 관계를 정치, 윤리, 종교, 생활 방면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대만을 "秦始皇、漢武帝가튼 이들이고 仙人을 찾고 不死藥을 求하고 저 사람을 보낸 곳"[49]으로 "人事의 괴로움이 업고 生活의 즐거움만이 넉넉"[50]함만이 있는 곳으로 소개하면서, 연암 박지원의 『熱河日記』에 나오는 許生이 邊山에 있는 강도들을 설득하여 데리고 간 이상국도 대만이라고 설파하였다. 박윤원은 칼럼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글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것은 臺灣事件勃發當時 寄稿 紙面關係로 지금에야 싯는다. …… 넘우도 生活上暇隙이 업섯기 때문에 蕃族問題에 關한 專門的研究는 가지지 못하엿스나 남다른 感想을 가지고 臺灣과 蕃族, 아울러 注視하얏든바 마침 所謂蕃人暴動의 問題가 發起함을 契機로하야 옛날에 적은 見聞을 草 하야 紹介코저한다."[51] 박윤

---

44) 『朝鮮總督府官報』 1059호, 「南洋及印度方面渡航朝鮮人身分證明方二關スル件」, 1916.02.17. 1면.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 2017.07.27. 22:47 검색)
45) 金泳信, 「日帝下 韓人的 臺灣移住」, 『國史館論叢』 99, 國史編纂委員會, 2002, p.191.
46) 朴潤元,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p.78.
47) 위의 글, p.78.
48) 위의 글, p.78.
49) 『동아일보』, 「臺灣蕃族과 朝鮮」(상).
50) 위의 기사.
51) 위의 기사.

원이 언급하고 있는 '대만사건' 혹은 '번인 폭동'은 1930년 10월 27일에 일어난 우서사건을 가리킨다. 타이중주(台中州) 우서에서 일어난 일본 식민지 통치 시기 원주민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민족운동이자 사회운동이었다. 강제적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토지를 빼앗기고,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일본의 가혹한 탄압에 대한 저항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만총독부는 즉시 군대, 경찰들을 출동시키고 철저한 탄압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700여 명의 원주민들이 학살되었다.

박윤원에게 우서사건은 대만 원주민들만의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비극은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조선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별로 교류가 없어 잘 알지 못했던 대만의 원주민들에 관한 사건이었지만 일제 탄압이라는 참혹한 모습은 식민지 시대의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윤원은 이 점에 쉽게 동화되어 글을 집필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박윤원은 대만과 관련된 세 편의 글을 기고했다. 그 중 두 편은 대만 원주민에 관한 내용이다. 박윤원이 원주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주민 사회를 서양의 과학적 사고와 방법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그들은 단지 미개한 문화, 현대사회문화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원시적이고, 고립된 문화로 해석될지 모르나, 박윤원은 그들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신, 인간의 평등과 정의의 실천, 자연에 기대어 사는 지혜의 소중함을 읽어내었다.

4. 나가며

대만 학자인 스이린 교수가 박윤원이 "한국 사람인 듯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박윤원이 한국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박윤원은 조선과 대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1920년대에 양국을 무대로 활동한 언론인이자 신지식인이었다. 그는 모종의 이유로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약 3년간 대만에서 체류하게 되었다. 대만에서의 생활이 녹녹하지 않았지만 그는 5편의 글, 「國教宗教辨」, 「堅忍論」, 「史前人類論」, 「臺遊雜感」,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을 집필하였으며, 조선에 돌아와서는 「臺灣蕃族과 朝鮮」이라는 칼럼도 연재했다.

박윤원의 글이 실린 『대만문예총지』와 『숭문사문집』은 1920년대 대만 잡지계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잡지였다. 1919년 1월에 창간된 『대만문예총지』는 1925년 7월 25일에 폐간되었지만 대만 최초의 한문 잡지로서, 1920년대 대만 신문화와 신문학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한 잡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숭문사문집』도 '공교론'의 찬반 양론을 일으키며 독자의 큰 호응을 받았던 잡지였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대만 '문사' 잡지에 조선인의 신분으로 글이 실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만과 조선에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조선으로 돌아온 박윤원은 1930년에 우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만 원주민에 대한 칼럼을 쓸 정도로 대만 원주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가 처음으로 여행한 곳

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 원주민 마을이었다. 박윤원은 비록 문명세계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그 속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삶을 영위하는 그들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삶을 강요받으면서도 인내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어내는 그들의 모습이 현재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애잔한 슬픔마저 준다.

1920년대는 한국과 대만 모두 일본 식민지 시대로, 나라 잃은 식민지인으로서 억압받고 온갖 차별과 고초를 강요당하는 시기였다. 일본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원주민의 모습을 보며 그는 고국에 있는 조선인을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堅忍論」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없이 인내하면서 자신을 이겨내다 보면 결국은 인내로써 이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1930년 우서사건을 계기로 쓴 「臺灣蕃族과 朝鮮」 칼럼을 마지막으로 박윤원의 글을 더 이상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1930년 이후로 박윤원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한국 독자들에게는 대만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대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었으며, 대만 독자들에게는 한국의 좋은 글을 소개함으로써, 대만과 한국의 교량역할을 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박윤원에 관한 연구 및 문헌 자료가 부족하고 제한적이어서 그에 대한 인물 발굴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자료를 통해 박윤원이라는 인물과 그의 글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개벽』, 제9호, 「讀者 交情欄」, 1921.03.01.
『朝鮮總督府官報』, 1916.02.17.
金泳信, 「日帝下韓人的臺灣移住」, 『國史館論叢』 99, 國史編纂委員會, 2002
朴潤元, 「國教宗教辯」, 『崇文社文集』, 3권, 1920.
_____, 「史前人類論」, 『臺灣文藝叢誌』, 3권 2호, 3권 3호, 1921.
_____, 「堅忍論」, 『臺灣文藝叢誌』, 3권 3호, 1921.
_____, 「臺遊雜感」, 『開闢』 第9號, 新文館, 1921.03.
_____,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開闢』, 창간 1주년 기념호, 新文館, 1921.07.
_____, 「臺灣蕃族과 朝鮮」, 『동아일보』 4면, 1930.12.10-12.
오태영, 「근대 한국인의 타이완 여행과 인식—시찰기와 기행문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6(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3.
최남선, 『시문독본』, 현암사, 1973.
황선익, 「일제강점기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강제연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08.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 http://gb.nl.go.kr
『台灣文藝叢誌』, 臺灣文社, 1919.
『崇文社文集』3卷, 蘭記圖書部承印, 1920.
川路祥代, 「1919年日本殖民地臺灣之「孔教論」」, 成大『宗教與文化學報』, 第1期, 2001.12.
佐々充昭, 「東アジア近代における孔教運動の展開—康有為と朝鮮人儒学者との交流を中心に」, 『The Ritsumeikan literature review』, 626, 2012.03.
施懿琳, 「台灣文社初探—以1919-1923『台灣文藝叢誌』爲對象」, 櫟社百年學術研討會, 臺中縣文化局, 2001.12.
翁聖峰, 「日治時期臺灣孔教宗教辨—以臺灣文社及崇文社為論述中心」, 「淡江大學12屆社會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 2008.05.
許俊雅, 「朝鮮作家朴潤元在臺作品及其臺灣紀行析論」, 『成大中文學報』, 第34期, 國立成功大學中文系, 2011.09.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朴潤元, 台灣文藝叢誌, 崇文社文集, 開闢, 1920年代, 臺灣認識, 紀行文
	영문	Park, Yun-won, *Collection of Taiwan Literature and Arts*, *Collection of Chong-wen Club*, *Kae-Byok*, the 1920s, recognition of Taiwan, travel notes

Taiwan Travel Writing of Korean, Park, Yun-won in modern period

Hwang, Sun-mi

In the Year 3 Issue 3 of "*Collection of Taiwan Literature and Arts*" printed in March 1921 were two works : '*An essay on perseverance(2)*' and '*An essay on prehistory mankind(sequel)*'. Professor Shih, Yi Lin presumed that the two works were written by a Korean named Park, Yun-won(박윤원). This article takes 'An essay on perseverance' and 'An essay on prehistory mankind' as the object of study and then, reviews whether Park, Yun-won is a Korean, what kind of works these two essays on the "*Collection of Taiwan Literature and Arts*" are, and whether these works were written by Park, Yun-won himself. At the same time, the contents of '*An essay on perseverance*', '*An essay on prehistory mankind*', '*Established religion and Religion Argument*', '*Dae Yoo Job Gam*', '*The living condition of our compatriots in Taiwan*', '*Taiwanese aborigines and Joseon*' and are introduced.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황선미 / 黃善美 / Hwang, Sun-Mi		
	소 속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Em@il	hsm3532@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8월 03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